

## 관모연봉산 접류채집기(冠帽連峰産蝶類採集記)<sup>1</sup>

석주명

관모봉산(産) 접류에 대해서는 이미 조복성<sup>2</sup>, 杉谷岩彦(스기타니 이와히코)<sup>3</sup>씨가 몸소 관모봉에 올라, 채집하여 발표한 글이 있다. 나<sup>4</sup> 또한 이전에 이곳을 다룬 일이 있지만, 관모연봉을 종주하면서 채집하여 보고하는 것은 본편이 처음이다. (Fig. 1)

관모봉 내지 관모연봉은 산악으로써도 훌륭하며 그 곳의 동식물상(相)은 특이성이 많다. 그리고 부근에 산재한 많은 수의 온천은 유명한 주을(朱乙)온천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상당히 알려지고 있다. 북위 42도 가까운 곳에 해발 2541미터나 되는 관모주봉은 해안선에서 10리 이내에 위치하며, 더욱이 이 지방은 문화가 뒤쳐진 함경북도에 속해 있어 인위적으로 파손된 곳도 적어서 생물상 연구 측면에서는 대단히 가치가 있는 곳이다. 남조선 고산에서 많이 보이는 사찰 같은 것도 관모연봉에서는 한 군데도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답파하는 데는 야영을 하는 수 밖에 없는 점이 매우 불편하긴 해도 그만큼 상당히 좋은 채집 지대라 할 수 있다.

관모연봉이란 명칭은 최근 지어진 것으로 여기에선 그 의의나 범위를 논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글에 양보하고 또한 그 지방의 기록에 관한 소견 같은 것도 다른 날 다른 잡지에 발표하겠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룬 모든 채집 지점이 관모연봉의 주요 부분이란 점만은 명기해 두고자 한다.

나는 올 여름(1940) 함북 종성군(鍾城郡)교육회 등산대에 조수 장재순 군을 동반하여 참가해 유쾌하면서 또한 수확이 많은 채집 여행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종성군교육회 회장 이운봉 씨의 호의와 대원 모두의 후의에 따른 것이었다. 이 글을 쓰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더욱이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해 주고 많은 가르침을 준 齋藤龍本, 조복성, 瀧庸 등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

여느 때처럼 먼저 여행기를 요약해서 적어보겠다.

전부터 관모 등산 기회를 부탁해 두었던 나남의 齋藤龍本 씨로부터, 함북 종성군교육회 등산대에 참가해 보라는 전보를 받은 게 7월 21일 오후 2시 반이다. 마침 7월 27, 28일경에는 일본학술진흥회의 보조를 받고 북만주로 여행할 예정이었는데 북만주 여행을 조금 연기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잘 부탁한다는 전보를 종성군교육회 회장 및 齋藤씨, 龍本씨에게 보냈다. 그 등산대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날 아침까지 개성을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 등산이 끝나면 집에 귀가하지 않고 진도문(盡圖門)을 경유해 북만주 여행으로 이동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분주한 준비였다. 게다가 장마가 한창인 시기로 수해 때문에 내일 아침 기차가 출발할지가 가장 보증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아무튼 준비를 했다.

<sup>1</sup> 일본학술진흥회 보조에 의한 업적, 다섯 번째

<sup>2</sup> 조선박물학회잡지, 17호, 69~85페이지, 1934.

<sup>3</sup> 조선산악, III, 1~11페이지, 1934.

<sup>4</sup> Zephyrus, vol. 5. P. 259~281, 1934; vol. 6, p. 114, 1935

## 지도

Fig. 1. 채집지 지지도(採集地 指示圖)

7월 22일(월) 비

며칠 전에 도쿄에서 귀향한 장재순 군이 아침에 인사차 들렀다가 갑자기 얘기가 성립되어 둘이서 같이 떠나기로 결정. 오전 10시 59분 개성발 기차가 두 시간 가까이나 연착한 후 출발. 경성에서 물건을 사기로 예정했던 시간도 없어져 버렸기에 곧바로 환승해서 주을까지 직행. 도중에 밤 11시가 다 된 시간에 함흥역에서 영생고녀교장(永生高女校長) 원홍구 선생님을 만났다.

7월 23일(화) 맑음

오전 6시 47분 주을 도착. 중부조선은 장마 시기라 곤혹스러웠는데 이 지방에 와보니 날씨가 전혀 달라 최근에는 오히려 가뭄이 계속되는 것 같았다. 오전 10시 온보(溫堡)에 집합한 중성군교육회 등산대 사람들에 가담해 유유히 등산 개시. 먼저 동척(東拓)의 삼림철도를 이용해 온보 출발. 저녁에 부령군 서상면에 있는 동척사무소에 도착할 때까지 곳곳에서 채집을 시도했다.

7월 24일(수) 맑음

오전 8시에 출발해 해발 1275미터에 있는 영정(嶺頂)정차장까지 삼림철도를 타고 돌아와 그 뒤부터 도보 행진. 중성, 부령, 무산 3군(郡) 경계점에 도달하기 전 산록에서, 거미줄에 걸린 상제나비(エゾシロテフ) 수컷 한 마리의 유해를 채집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 첫날 캠프지 북도정산에 도착해 잠시 쉬고 있는 중에, 바로 전망 남측에서 흰나비(シロテフ) 한 마리가 이상한 모양으로 날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한달음에 쫓아가 잡고 보니 줄흰나비(アムール스ダグロテフ) 자웅형이 아닌가! 내겐 생애 첫 자웅형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는 최초의 자웅형이었다. 게다가 참으로 훌륭한 개체로 왼쪽 날개가 수컷, 오른쪽 날개가 암컷, 복부(체구)는 암컷인 전형적인 형질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때의 기쁨이란 한 마디로 형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상상에 맡기겠다.

## 사진

Fig. 2. 도정산 남쪽 산릉을 걷고 있는 중성군교육회 등산대. 포충망을 들고 있는 두 사람이 필자와 장재순 군(1940, vii, 25)

7월 25일(목) 맑은 뒤 흐리다가 비

오전 8시 30분 북도정산 출발. 약 한 시간 걸어 남도정산 도착. 그 후 남쪽으로는 코스는 산릉을 따라 걷는 참으로 양호한 채집지(Fig. 2), 부근에서 호랑나비 여름형 암컷 한 마리를 잡아, 어제 줄흰나비(アムール스ダグロテフ) 자웅형을 잡은 직후 호랑나비 여름형을 놓쳐 아쉬워했던 미련을 보충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고위도에서 더욱이 높은 해발 지대에서 정형(正型)의 호랑나비 여름형 암컷을 잡은 일은 분명 기억할 가치가 있다.

예정했던 캠프지 견청대(見晴臺)에 도착했지만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시간도 조금 일러 계속해서 전진. 그 후 약 1리 떨어진 곳에서 좋은 캠프지를 발견하고 야영. 마른 물이끼지대에 텐트를 쳤기 때문에 한밤중엔 참으로 멋진 소파 위에 자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전 2시부터 잠시 굵은 빗방울이 텐트를 때리는 바람에 비명을 지를 뻔했다.

7월 26일(금) 맑은 뒤 비

한기가 느껴져 눈을 떠보니 맑은 하늘이었다. 모두 기운을 회복하고 오전 8시에 느긋하게 관모로 향했다. 도중엔 대부분 수확이 없었지만, 북관모 남관모 간에서는 큰산뱀눈나비(オホタカネヒカゲ), 관모산지옥나비(カンボウベニヒカゲ) 2 종을 풍부하게 채집해 참으로 유쾌했다. 게다가 이 곳에서 장 군이 일본 미기록종 재순이지옥나비(ザイジュンベニヒカゲ)(신명칭) 암컷 1개체를 채집했기 때문에 이 북관모 중관모 간은 이번 여행 중 최고로 좋은 채집 장소로 실로 잊을 수 없는 곳이다. 더욱이 이곳은 이제껏 아무도 채집한 적이 없는 장소로 언젠가 다시 한 번 채집을 시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다음 주관모 부근은 참으로 광대한 산정 광장으로(Fig. 3) 좋은 채집지였지만, 이곳에선 완전히 비에 젖어 고생을 하며 겨우 아사노(淺野)산막까지 내려왔다. 빗속을 뚫고 산막에 도착했건만 황폐하여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철야를 해야만 했다. 밤새 비는 계속 되었지만 다행히 큰 비가 아니었고 숙련된 안내인 박신근 씨의 노력으로 모두 무사히 밤을 넘길 수 있었다.

#### 사진

Fig. 3. 관모주봉 정상 부근. 필자와 장 군(1940, vii, 26)

7월 27일(토) 맑은 뒤 비

오전 6시 30분 아사노 산막 출발. 우룡담에서 일동이 휴식하는 사이에 충분히 채집했다. 남하단, 북하단에서도 채집, 오후 4시에 민막곡에 도착, 수연광(水鉛鑛) 산막에서 숙박했다. 오랜만에 인가에서 머물게 되어, 특히 어젯밤 고생하던 일을 떠올리면서 서로 얘기를 나눴다.

7월 28일(일) 흐림

오전 8시에 민막곡 출발. 오후 1시 보상(浦上)에 도착할 때까지 신발 신은 채로 도하하기를 십 수회. 도중에 거미줄에 걸려 바둥거리고 있는 왕팔랑나비(マヘキセセリ) 암컷 1개체를 채집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 보상에서 시골의 조촐한 연회를 열어 교육회 모든 사람에게 그간의 도움에 감사를 드리고 이별 인사를 한 후, 나와 장재순군은 보상에 체재하면서 휴양하기로 했다.

7월 29일(월) 맑음

종일 여관에 있는 정원 앞에서 채집을 하거나 강가 노천온천에 들어가거나(Fig. 4) 낚시를 하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휴양.

#### 사진

Fig. 4 보상의 노천온천, 필자(1940, vii, 28)

7월 30일(화) 맑음

오전 8시 보상 발. 오후 2시 주을에 도착할 때까지 중간 중간에 채집. 이날 오후 장재순군은 채집품을 가지고 개성으로 향하고, 나는 온보에서 1박하고 다음날 만주로 출발하기로 했다.

이어서 채집품 목록을 첨부하는데 주을, 온보 부근, 성정 부근 평지에서 채집한 것은 모조리 빼고, 관모연봉에 속한 지점에서 채집한 종류만 적겠다. 하지만 상세함을 기하기 위해 대개의 지도에는 나와있지 않은 지명도 부기했으나, 그들 지점에는 대부분 인가가 없어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분명치 않을 것이다.

채집품 목록 (생략)

다음으로 본아종의 개체변이에 관해 조금 적어보겠다.

- 1) 본종은 암수 모두 날개형이 현저하게 둥글지만 암컷이 더 둥글다.
- 2) 암컷의 색채는 수컷에 비해 희미한 느낌이 든다.
- 3) 앞날개 표면 제 1-3실에 있는 채반(贅斑) 같은 작은 반문(斑紋)은 암컷에서 나타나는 빈도가 높다. 이어서 채반 수의 변이의 일단을 제시하겠다.

제1표 앞날개 표면 채반 모양의 부호

시실(翅室)	3	2	1
부호(符號)	a	b	c

제2표 반문 변이표

	a	b	c	♂	♀	♂♀ 계
1	0	0		1	1	2
2		0	0		5	5
3		0			1	1
4				4	3	7
				5	10	15

제2표에 의하면 이와 같은 반문은 정말 말 그대로 채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앞날개 길이는 암수 모두 22-25mm로 그 변이의 일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3표 조사한 개체의 앞날개 길이 측정표

mm	22	23	24	25	계
♂	1	2	1	1	5
♀	4	3	2	1	10
	총계				15

## 5) 분포

국내산지.....주관모, 북관모-중관모 간.

국외산지.....알타이 산맥, 샤얀 산맥, 바이칼, 야브로노이 산맥, 아무르, Kara 툰드라(도보루스크 북방)